

이병권 “대형마트 새벽배송, 유통산업 상생협력으로 풀어야”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기자간담회 “유통산업 상생협력 지속가능성 확보” 올해 정책방향, 성장·회복·재도전 ‘소확행 TF’ 가동, 현장소통·정책발굴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이슈는 유통산업분야에서 상생협력 문제로 풀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병권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마포에 있는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지금은 새벽배송을 대형마트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유통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과거에 만든 제도의 틀이 많이 퇴색했다. 정부가 (대형마트)규제를 계속 존속시키는게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상인들의 상생, 온라인 유통강자와 오프라인의 상생 협력 등 이제는 대결구도를 통한 영역다툼 경쟁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으로 나가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유통 유통산업에서 상생협력을 해야 어떤 기업이든 지속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마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올해 소상공인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중기부

가능성을 확보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이슈는 법개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생협력 테두리 안에서 방법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정책기획관, 서울지방중기청장 등을 역임한 이 차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만들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중기부의 첫 2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차관은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 중심이었지만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성장, 사회안전망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소상공인 매출 증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대기업·플랫폼사들과의 협업 분야를 기존에 종합(식품 제외), 식품, 패션·뷰티, 숙박·음식점 분야에서 ‘홈·리빙’ 분야까지 늘리고, 수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패션’과 ‘뷰티’를 분리해 ▲식품 ▲홈·리빙 ▲패션 ▲뷰티 4개 분야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기초컨설팅(3500개사)→브랜드정립(700개사)→브랜드 홍보확산(30개사) 등 소상공인의 역량, 성장 가능성에 따라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한다.

이 차관은 “일부 플랫폼들이 해외에 나가면서 소상공인 제품과 같이 진출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시장으로 가면서 소상공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들로 재편해 소상공인들의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위기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조40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60% 이상을 비수도권, 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한다. 금리도 0.2%포인트(p) 낮춰 부담을 더욱 줄여줄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 78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새출발지원센터’를 활용해 재기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집중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선별·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매출액 중심에서 소득·자산 등을 반영한 지원체계로 바뀌 정책 효과를 높인다. 소상공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올해 4만2000명까지 늘린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은 우리 경제의 하부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받는 변수도 다양하다. 대상자도 많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대중기협력재단

고탄소업종 ESG 지원

20곳에 기업당 최대 1500만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고탄소배출업종 중소·중견기업 20여 곳에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해 탈탄소를 돕는다.

대중기협력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의 탈탄소 전환과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 ESG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 기반 탈탄소 협력 유형을 확산하고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 ESG 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연계해 추진하는 종합 지원 과제(패키지형 프로그램)로, 고탄소배출업종 기업과 협력이 공동으로 ESG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등 12대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에 해당하는 국내 대·중견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며 상생협력기금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소 30% 이상 출연해야 한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美 보스턴에 AI 로봇 해외 실증거점 구축

대구 AI로봇 특구 기업 지원 위해 마련 원본 영상 기반 AI 학습 성능 검증 추진 현지 오피스로 실증·시장 안착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미국 보스턴에 인공지능(AI) 로봇 첨단 기술 실증 거점을 만들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한다.

16일 중진공에 따르면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GRC)와 함께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의 로봇 실증 거점인 ‘너브 센터(NERVE CENTER)’에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AI로봇 분야 첨단 기술 실증을 위한 현지 거점을 구축했다.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부터 현재까지 총 7개 특구를 선정해 지원중이다. 중진공은 전문기관으로서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특구는 국내 신기술·신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내 글로벌특구 실증 거점에서 현지점점 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산업의 실증 특례를 지원하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국내 유망기업이 해외 인종과 실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지난해 5월 지정된 대구 AI

로봇 분야 글로벌특구기업의 글로벌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관기관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과 미국 보스턴 내 대구 특구의 해외 실증 거점(너브센터)을 마련했다. 특히, 국내 법적 제약으로 활용이 어려웠던 ‘AI 자율주행 로봇의 원

본 영상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술적 실증이 해외 거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로봇이 사람의 영상·행동·위치 등 데이터를 수집해 AI 학습에 활용하는데 엄격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로봇이 복잡한 군중 환경을 인지하고 보행자의 돌발 행동을 예측하는 등 고난도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람을 기반으로 한 ‘원본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원본 데이터와 가명 정보 기반 학습의 성능을 정밀 비교하고, 원본 데이터 활용 시 AI 성능 개선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중진공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현지 실증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는 이번 해외 실증을 시작으로 현지 실증지 활용을 본격화한다. /김승호 기자

기보, 中企 글로벌 기술이전 돕는다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사업 모집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이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6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해외 기술이전·합작투자·공동연구 등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체결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으로, 총 10개사를 선정해 기업별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환경 분석 및 현지화 전략 수립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이전 계약 관련 법률·규제 자문, 합작투자 및 공동연구 컨설팅, 기술검증(PoC) 전략도출 등 기업의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계약

글로벌 완성차사와 1조 규모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1조원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배터리 소재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자동차사와 약 1조149억원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5년이며 상호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됐다. 경영상 비밀 유지를 위해 고객사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계약은 포스코퓨처엠이 2011년

음극재 사업에 진출한 이후 체결한 최대 규모 공급계약이다. 포스코퓨처엠은 그동안 국내 배터리 업체와 GM 등 미국 완성차 업체에 음극재를 공급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일본 주요 배터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도 글로벌 자동차사와 약 6700억원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0월 체결한 천연흑연 음극재 공급계약과 연계된 성격을 띠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양극재와 리튬 등 배터리 소재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중공업

배관 자동화공장 가동

조선업 첫 스펀 공정 혁신

삼성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의 배관 스펀 제작 자동화 공장인 ‘파이프 로봇랩’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배관은 선박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설비다. 배관 제작은 설계 도면에 따라 엘보, 티, 플랜지 등을 용접해 하나의 단위인 스펀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삼성중공업은 배관 설계부터 자동 물류, 고정밀 가공·계측, 정렬, 용접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기에 비전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자동화 생산 체계를 구현했다.

파이프 로봇랩은 연면적 6500㎡ 규모로, 연간 약 10만개의 배관 스펀을 생산할 수 있다. 스펀 제작 공정에 첨단 로봇 기술을 적용해 생산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성과 작업 안전성까지 높인 업계 첫 사례로 평가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0월 구축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허브(S-EDH)’를 기반으로 설계·구매·생산 전 부문을 연결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파이프 로봇랩은 삼성중공업의 3X(A·X·DX·RX) 전환이 생산 현장에 본격 적용된 대표 사례 중 하나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